

2023.7.25. 제1회 고엽제 등급문제 국회 학술 세미나
종료후 위 해당 세미나 자료를
대통령실 및 정부, 국회, 관계기관에 배포
(2023.09.08.)

제1회 고엽제 국회 학술세미나 (2023.07.25.)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지난 2023년 7월 18일 제26회 고엽제의 날을 맞이하여 장충체육관에서 약 4,000여명의 고엽제전우들과 함께 베트남 전쟁 참전 59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25일에는 국회의 원회관에서 ‘고엽제 피해보상과 후유(의)증 등급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고엽제 등급문제 국회학술세미나」를 국회의원, 교수, 보훈학회 및 고엽제전우회 회원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양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축사를 하셨고, 보훈 학회장외 6명의 대학교수들이 고엽제 피해자들을 격려해 주셨으며, 저희들은 많은 위로를 받고 토론에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7월25일 세미나에서 격려 해주신 국회의원분들은 우리들의 참전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만든 영웅들이었다고 격려하여 주었고, 이는 오늘날 세계가 환호하는 “K-대한민국” 선진대국의 반열에 우뚝설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또한 세계경제 10위라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축사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와 세계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희들은 고엽제 병으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장에 참전하여 이제 山藪(산수)를 바라보는 이들이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갈라져,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후유증”으로 분류된 참전자들은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되고, 경미한 “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참전자들은 유족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한평생 고엽제병을 앓는 남편을 간호해왔던 유족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가정 불화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하여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통합하여 등급으로 정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참전군인들의 전투수당 미지급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고엽제 역학조사를 통하여 고엽제 피해군인들을 고엽제 피폭으로 고엽제 병을 앓고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은 규정이며, 똑같은 악성종양의 병인데도 말입니다.

현재 다음 <표1>과 같이 구분하고 보상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1>

고엽제환자 구분 및 보상등 관련 조건표

범례 : ■ 가능한 등급
X 불가능한 등급

총환자수 135,974명

2023.06.30. 현재

| 고엽제 후유증 | 구분 | 급수 총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등외 | |
|------------|--------|------------|----|-----|-------|-----|-------|--------|--------|--------|---|
| | 환자수(명) | 50,085 | 31 | 112 | 1,649 | 219 | 3,389 | 21,797 | 10,791 | 12,097 | |
| | 보상관련 | 보상급여 | ■ | ■ | ■ | ■ | ■ | ■ | ■ | ■ | X |
| | | 자기 질병치료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질병치료 | ■ | ■ | ■ | ■ | ■ | ■ | ■ | X | X |
| 유족승계 | | ■ | ■ | ■ | ■ | ■ | ■ | ■ | X | X | |

| 고엽제 후유(의)증 | 구분 | 급수 총계 | 고도 | | 중등도 | | 경도 | | 등외 | |
|---------------|--------|------------|--------|---|-------|---|--------|---|--------|--|
| | 환자수(명) | 85,889 | 11,042 | | 8,033 | | 30,664 | | 36,150 | |
| | 보상관련 | 보상급여 | ■ | | ■ | | ■ | | X | |
| | | 자기 질병치료 | ■ | | ■ | | ■ | | ■ | |
| | | 모든 질병치료 | ■ | | ■ | | X | | X | |
| 유족승계 | | X | | X | | X | | X | | |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은 같은 악성종양인데 왜 구분하는지요?”

위 표에서와 같이 후유증 환자들은 모든 보상혜택을 받고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승계가 되는데, 후유의증 환자들은 사망하면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생전 아내들이 생계를 살피느라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데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같은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복무하였는데 왜 나의 유족은 제외되어야 하는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후유의증 환자들이 후유증환자와 같이 등급(급수)으로 분류가 가능하게 되면 다음 <표2>와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2>

상이등급 및 보상급여

2023.6.30.현재

| 구분 | 현 행 (월) | | | | | 변 경 후 (월) | | | |
|--|---------|--------|-----------|----------------|---|-----------|--------|-----------|----------------|
| | 등급 | 환자수(명) | 수당금액(원) | 합계(원) | | 희망등급 | 환자수(명) | 보상금액(원) | 합계(원) |
| 고엽제 후유의증 | 고도 | 11,042 | 1,119,000 | 12,355,998,000 | → | 6급 2항 | 11,042 | 1,535,000 | 16,949,470,000 |
| | | | | | | 추가소요 | | | 4,593,472,000 |
| | 중등도 | 8,033 | 825,000 | 6,627,225,000 | | 6급 3항 | 8,033 | 1,031,000 | 8,282,023,000 |
| | | | | | | 추가소요 | | | 1,654,798,000 |
| | 경도 | 30,664 | 541,000 | 16,589,224,000 | | 7급 | 30,664 | 568,000 | 17,417,152,000 |
| | | | | | | 추가소요 | | | 827,928,000 |
| | 등외등 | 36,150 | 390,000 | 14,098,500,000 | | 7급 | 36,150 | 568,000 | 20,533,200,000 |
| | | | | | | 추가소요 | | | 6,434,700,000 |
| ※ 고도는 예산에 관계없이 6급 3항으로 등급 변경 | | | | | | | | | |
| ※고엽제 후유(의)증의 주 병명은 악성종양으로 간암, 위암, 중추신경장애 등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고엽제 후유증 | 7급 | 10,791 | 568,000 | 6,129,288,000 | → | 6급 3항 | 10,791 | 1,031,000 | 11,125,521,000 |
| | | | | | | 추가소요 | | | 4,996,233,000 |
| | 등외 | 12,097 | 390,000 | 4,717,830,000 | | 7급 | 12,097 | 568,000 | 6,871,096,000 |
| | | | | | | 추가소요 | | | 2,153,266,000 |
| ※고엽제 후유증의 주 병명은 악성종양으로 폐암, 전립선암, 심장질환, 담낭암 등입니다. | | | | | | | | | |

※총환자수 : 135,974명, 유족승계 : 27,197명, 미승계 : 108,777명

⇒총소요예산 : 81,178,462,000 현지급액 : 60,518,065,000 추가소요액 : 20,660,397,000

대통령님

이들에게 소요될 추가예산은 국회통과와 대통령의 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정부는 2023년 총예산 639조원 중에 사회복지 예산으로 109조원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의 1% 미만인 2,400억원**(0.22%)**이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제는 악성종양을 몸에 지닌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노영웅(老英雄)들의
갈등과 애환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참전용사들이
국가의 명을 따라 충성하기를 잘 하였다는
자부심으로 단결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 08.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장 황 규 승**

정전 70주년 고엽제 등급 문제

고엽제 피해 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25(화) 10: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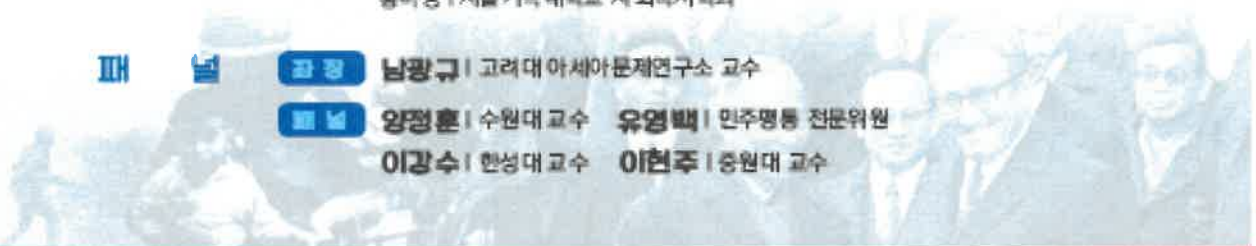
- > 주 최 김병주 · 신원식 국회의원
- > 협력 국회의원 김종민 · 박수영 · 안병길 · 이철규 · 이채익 · 이학영 · 장재원(개나다순)
- > 진 행 모닝포커스
- > 후 원 국방일보 · 국방전우신문 · 나라신문 · 문화일보 · 전우뉴스
해병전우신문 · 한국언론연대

주제 발표 사회 : 백지선 | 모닝포커스 총괄본부장

- 발제 1** 고엽제 피해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길래 |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 발제 2** 아직도 미결인 월남전 전투수당 문제, 그 해결방안은?
이용재 | 전 보훈교육원 선임연구원
- 발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유족을 위한 바람직한 보훈복지서비스는?
황미경 | 서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패널 **강령** 남광규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패널** 양정훈 | 수원대 교수 유영백 | 민주평통 전문위원
이강수 | 한성대 교수 이현주 | 중원대 교수



| 주 관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한국보훈학회

문의 02-775-2422

제1회 고엽제 국회 학술세미나

정전 70주년, 고엽제 등급 문제

고엽제 피해 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일시: 7월 25일(화)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주최: 김병주·신원식 국회의원

협력 국회의원: 김종민·박수영·안병길·이철규·
이채익·이학영·장제원 (가나다 순)

주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한국보훈학회

진행: 모닝포커스

후원: 국방일보·국방전우신문·나라신문·문화일보
전우뉴스·해병전우신문·한국언론연대

문의: 02-775-2422

주제발표

개회 백지현 | 모닝포커스 출판부장

발제 1 고엽제 피해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길권 |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발제 2 아직도 미결인 월남전 전부수당 문제,
그 해결방안은?
이종재 | 전 보훈고위관 전임연구원

발제 3 고엽제 후유(의)증 원상 유지를 위한
법정적인 보완책과 제언은?
황대경 | 서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패널

위원장: 남광규 | 고려대 명예이정재연구소 교수

패널: 양정운 | 수협대 교수

유영택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강수 | 연세대 교수

이현주 | 연세대 교수